

2023. 4. 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2133-1920
빛디자인팀장	김선국	2133-1935
담당자	임보형	2133-1938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매

### 서울시 '아뜰리에 광화', 4월 기획전 <봄으로부터> 개최

- 세종문화회관 외벽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를 '아뜰리에 광화'로 새롭게 브랜딩
- <봄으로부터>를 주제로 4.5.(수)~7.30.(일) 매일 저녁 19시~22시 기획전 개최
- 4월 기획전을 시작으로 24년 3월까지 초대전, 빛축제 연계전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

-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외벽의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를 '아뜰리에 광화'로 새로 단장하며 4월 기획전 <봄으로부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는 건물 외벽에 LED조명, 프로젝터 등 이용해 시각적 효과를 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외벽을 새로운 미디어로 활용하고 도시 공간에서 인상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다.
  -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의 새 이름 '아뜰리에 광화'는 예술가의 공간을 뜻하는 프랑스어 '아뜰리에'와 역사와 예술의 중심지인 '광화'의 합성어로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를 '광화문광장의 풍성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 '아뜰리에 광화'의 첫 번째 전시 <봄으로부터>는 오는 4월 5일(수)부터 7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간 개최된다. 매일 저녁 19시부터 밤 22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섬세하고 화려한 미디어아트 3점이 아름다운 음향과 함께 송출되어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 기획전의 주제 ‘봄으로부터’는 자연의 순수함과 서울성을 담은 3개의 작품을 미디어과사드라는 창(window)을 통해 ‘봄(Seeing)’으로써 생명력 가득한 ‘봄(Spring)’의 기운을 광화문광장에 불어넣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 기획전 〈봄으로부터〉는 회화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 김보희 작가의 〈the days〉를 시작으로 한국의 미래를 가상의 공간인 META 서울로 표현한 이돈아 작가의 〈beyond Korea\_bright future〉, 향아리의 표면에 맺힌 한국의 풍경을 표현한 우박스튜디오(우현주, 박지윤) 작가의 〈Hang a ri〉 작품으로 구성됐다.
- 김보희 작가, 〈the days〉는 회화를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하여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바다를 덮는 빛’, ‘고요한 그날’, ‘생동하는 초록의 밤’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수목화 같은 바다와 울창한 숲, 개화하는 꽃, 연초록의 정원과 바다의 풍경, 달빛의 장엄함을 그려낸다. 김보희 작가의 회화 47점으로 만들어진 영상작품은 마치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듯한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 이돈아 작가, 〈beyond Korea\_bright future〉는 디지털·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5세기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발전 국가를 이룬 세종대왕과 선조들의 업적을 모티브로 하여 무한한 가치를 지닌 메타 한국의 미래를 표현한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초현실적인 공간에 위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우박스튜디오, 〈Hang a ri〉는 오랜 시간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담아온 향아리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향아리의 표면에 맺힌 한국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장소에 대한 향수를 감각적으로 불러일으키며, 생경한 풍경을 통해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서울시는 4월 기획전을 시작으로 '24년 3월까지 〈초대전〉, 〈연계전〉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 8월부터 11월까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내외 작가를 초대한 초대전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연계전을 개최하여 광화문광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계획이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도 준비했다.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전시 동안 서울라이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seoullight\_official)
- 한편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는 최고 사양인 5만 ANSI lumen(안시 루멘)의 빔프로젝터로 미디어아트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전면과 대극장 측면 외벽에 투사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이다. 매일 일몰 후 선명하고 우수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전시하여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광화문광장은 도시공간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장소이다.”라며 “앞으로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야간에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도록 하여 광화문광장을 풍성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1회 기획전시 〈봄으로부터〉 개요, 작품소개 1부.  
 2. 작가약력 1부. 끝.

□ 전시개요

○ 전시주제 : 아틀리에 광화:봄으로부터 (From Spring)

○ 전시기간 : '23. 4. 5.(수) ~ 7. 30.(일), 19:00 ~ 22:00

※ 매 정시 총 28분 단위로 시간당 2회 연속 상영

○ 전시내용

- 자연의 순수함과 서울의 모습을 담은 3개의 작품을 미디어파사드라는 창을 통해 봄으로써 생명력 가득한 봄의 기운을 광화문광장에 불어넣고자 한다.

□ 작품소개

작가명	작품명, 작품소개	작품 이미지
김보희	<p align="center">&lt;the days&gt;</p> <p>- 회화를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하여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사색을 표현한 작품</p>	
이돈아	<p align="center">&lt;beyond Korea_bright future&gt;</p> <p>- 15세기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발전 국가를 이룬 세종대왕과 선조들의 업적을 모티브로 현재 우리 나라의 자긍심을 보여주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한국의 미래를 표현한 작품</p>	
우박 스튜디오	<p align="center">&lt;Hang a ri&gt;</p> <p>- 오랜 시간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담아온 향아리를 모티브로 향아리에 비친 서울의 모습을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작품</p>	

### 1. 김보희 Kim Bohie (b.1952)

김보희는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1976년 동대학원 순수미술과를 졸업하였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교수를 지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제주현대미술관 “the Days”를 비롯하여 24회의 개인전 및 “인텍싱 더 네이처: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으로부터”, No.9 코크 스트리트 런던, 금호미술관, 양주시립 장육진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를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50여 년에 걸쳐 작가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자연과 일상의 순간을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펼쳐왔다.

제 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30회 국전 특선 등을 받았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 2. 이돈아 Lee Donah (b.1967)

이돈아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고,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수료했다. 2004년 미국 School of Visual Art에서 TECHNIQUES & MATERIALS OF PAINTING을 뉴욕 대학에서

The Art&Education-DESIGNINGEFFECTIVE PROGRAMS을 연수했다. 28회의 개인전 및 2022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비엔나 세계박물관 Weltmuseum, 2021 경기도 신청사 미술작품 ‘어제 오늘 내일’ 선정, ‘예술 치유 프로젝트’ Coex 서울, 갤러리 현대 전시를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시공간을 화두로 20여년간 작업해 온 이돈아 작가는 역사에 기반하여 현실계와 상상계를 동시에 소환하고, 행복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

고 있다. 평면 회화, 렌티큘러, 영상, 공공 미술 등 다매체 작업을 병행하는 멀티미디어 작가로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작품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제2회 중앙미디어아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신청사,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 박물관 Weltmuseum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3. 우박 스튜디오 Ubac studio

우박 스튜디오는 두 명의 미디어아티스트 우현주와 박지윤이 설립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로 우리 주변의 기술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활용되는지, 개인이 어떻게 기술사회와 얽혀 있는지를 관찰하며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 2회의 개인전 및 광화문 '어제의 내일', '미디어 특별전 : 휴먼 오디세이' 천안시립미술관, 'Unfold X, Shaping the future: 기술이 매개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 에스팩토리 서울, 아르떼 뮤지엄 제주 전시를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Animaze 2022 (Experimental 부문)에 공식 선정되었으며, 영국 Aesthetica Shorts Film Festival 작품 선정,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다원) 선정,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술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